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06期(2026.09.04) WWW.MINGHUI.ORG

한글판 1070호 minghui.or.kr



▲ 8월 29일, 미국 중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열었다.

주요내용

- 【수련】 투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고하다
- 【수련】 캠퍼스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선원을 널리 알리며 착실히 수련하다
- 【수련】 한 번의 급여 인상으로 숨겨진 집착심을 발견하다
- 【수련】 발정념을 다시 깨닫다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9
---------------------------------	---

■ 수련교류

투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고하다	12
캠퍼스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선원을 널리 알리며 착실히 수련하다	14
한 번의 급여 인상으로 숨겨진 집착심을 발견하다	28
진선인에 따라 심성을 높여 실업이 가져온 시련을 넘기다	35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42
발정념을 다시 깨닫다	50
평온함과 균형에 대해 말하다	53
선(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다	55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8월 30일, 미국 중부 지역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 득교류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다. 16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각자의 수련 경험을 나누었다. 그들의 발언 중에는 처음 파룬궁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사람도 있었고, 학업, 가정, 사업의 겹겹이 쌓인 압력에 직면해 억울함과 모순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한 사람도 있었다. 또 비판을 받고 사업상 좌절을 겪은 후,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오만과 자아를 직시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겪은 바가 다르고 직면한 시련도 각기 달랐지만 그들은 공통된 체득을 나누었다. 그 것은 갈등과 연마 속에서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기준에 따라 안으로 찾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끊임없이 심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수련자들은 또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큰 행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며, 조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님을 체득했다. 마음만 있다면 주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기꺼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의지만 있다면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교류는 참석한 수련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모두 함께 남은 정법 수련의 길을 잘 건도록 격려했다.

8월 29일, 미국 중부 11개 주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열어, 시민들에게 파룬따파 ‘진선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며,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에 대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박해에 관심을 가지고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퍼레이드 대열은 차이나타운의 랜드마크인 중산공원에서 출발해 차이나타운의 여러 주요 블록을 지났다. ‘파룬따파’, ‘진선인’ 깃발 대열이 앞장섰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 추모, 그리고 박해 반대 등 주제의 대열이 차례로 전진했다. 길가의 수많은 현지 주민과 각지의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며 진상을 알아봤고, 잇달아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지지와 경의를 표했다. 이사벨 아마도르와 세 딸은 파룬궁 퍼레이드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사벨이 말했다. “퍼레이드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선인’ 원칙은 매우 훌륭합니다.” 아니사 아마도르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가 시카고 차이나타운에 자주 오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 퍼레이드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퍼레이드와 전시 전체가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아마도르는 집에 돌아간 후 파룬궁에 대해 더 알아보고 배우겠다고 밝혔다.

8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 파룬따파수련심독교류회가 생피에르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퀘벡 각지에서 온 12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발표에 나서 대법 ‘진선인’ 법리에 따라 착실히 수련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해 정체(整體)를 원융한 심득을 나누었다. 모든 발표자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사부님께서 내려주신 사람을 구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8월 9일 멕시코 우아만틀라에서 열린 것은 ‘국제 순간 예술 및 다알리아 축제’ 퍼레이드로 현지 제152회 시장 축제의 중요한 행

사 중 하나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멕시코의 파룬따파”와 ‘진선인’ 현수막을 들고 공법을 시연했으며 선녀팀, 요고팀, 용춤팀을 구성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수천 가족이 열정적으로 관람했고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파룬궁에 대해 알아봤으며 ‘진선인’ 가치관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푸에블라주와 툴락스칼라주를 아우르는 1370 AM 라디오 방송국은 소셜 미디어에서 퍼레이드를 생중계할 때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진행자는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그들의 수련은 주로 ‘진선인’이라는 핵심 가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대한 퍼레이드 행사에 와서 여러분과 이러한 메시지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8월 22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독일 뮌헨 시내 마리엔 광장에서 행사를 열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출을 자행하는 범죄를 폭로했다. 행사는 많은 행인의 지지를 받았고, 사람들은 파룬궁 박해를 반대하는 서명에 앞다투어 동참했다. 동시에 수련자들이 시연하는 공법도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이는 동작을 따라 해보았고, 어떤 이는 아주 진지하게 파룬궁수련자에게 연공 동작을 배웠다. 유아 교육 종사자 아닐은 수련자와 대화를 나눈 후 곧바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끄고 크고 작은 짐을 내려놓은 뒤 진지하게 수련자를 따라 동작을 배웠다. 그는 느낌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파룬궁의 ‘진선인’ 원칙에 대해 아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8월 22일, 프랑스 레위니옹섬 생폴시에서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폭력적인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한 국제 추모의 날' 행사가 열렸다. 수련자들이 마련한 정보 부스는 많은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파룬따파가 박해받는 진상을 알게 된 시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아 중공의 파룬궁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생폴시의 한 현지 주민은 중공이 자행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알게 된 후 한마디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중공은 중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루마니아 파룬궁수련자들은 콘스탄차(Constanța), 에포리에노르드, 코스티네슈티(Costinești), 망갈리아(Mangalia) 등 해변 휴양 도시에서 연이어 행사를 열고 파룬따파의 가치관을 소개하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폭로했다. 수많은 관광객이 직접 파룬따파 5장 공법을 체험하며 평온함과 상서로움을 느꼈다. 많은 시민이 진상을 안 후 ‘진선인’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에 공감했고, 파룬궁수련자의 신앙 자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주요 7개국(G7) 국가에 보내는 청원서에 서명하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은퇴한 교사 엘레나 세르버네스쿠(Elena Șerbănescu)는 파룬따파의 핵심 가치인 ‘진선인’에 매우 공감하며, 이러한 가치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진선인’을 사랑합니다. 이 원칙을 떠나면 인류는 앞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세상의 많은 것이 퇴보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잘못된 사조와 영향에 기인한 것입니다.” 중공의 파룬따파 수련자 박해에 대해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고, 인간

성, 공정함,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으며, 더더욱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파룬따파 수련자들을 경외하며, 그들이 계속 신앙을 고수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저는 매우 슬픔니다. 저는 그들이 충분한 지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 수련자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지합니다. 또한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브람바난 사원과 말리오보로 거리에 인파가 몰린 가운데, 파룬궁수련자들은 색채가 선명한 파룬(法輪)도형, 정연한 퍼레이드 대열, 아름다운 음악으로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에 참여했다. 수련자들은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박해를 알렸으며, 자유를 축하하는 행동으로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8월 15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옷을 입고 브람바난 사원에서 색채가 선명한 파룬도형을 만들었다. 그 후, 수련자들은 천국악단(天國樂團)의 인도에 따라 약 2km에 걸쳐 브람바난 사원 주변을 퍼레이드했다. 퍼레이드는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많은 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브람바난 사원의 마케팅 매니저 나닉은 수련자들이 이른 아침 행사 준비부터 저녁 퍼레이드까지 줄곧 훌륭한 정신 상태와 넘치는 활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퍼레이드가 이렇게 성대할 줄 몰랐고 이렇게 많은 수련자가 참가할 줄 몰랐으며, 파룬따파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관광객 로버트는 말했다. “만약 인도네시아의 모든 사람이 ‘진선인’에 따라 살아간다면 종교 간, 민족 및 문화 집

단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8월 16일, 수련자들은 유명한 상업 거리인 말리오보로 거리에서 또 한 번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열었다. 당일 저녁, 거리에 인파가 몰려들었다. 정부 청사 인근에서 시작된 퍼레이드는 약 1.5km에 걸쳐 진행됐으며, 길을 가던 수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많은 이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수십 명의 경찰과 현지 관리 부서 직원들이 대열을 뒤따랐다. 관광객 시티는 오늘날 사회에 ‘진선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룬따파의 ‘진선인’은 사람들의 삶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수련법이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선 안 됩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쓰촨성 더양시 파룬궁수련자 젠이충(簡以從, <簡以叢>으로도 씀)은 2026년 3월 경찰에게 납치 및 감금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더양시 징양구 법원은 8월 19일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4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1만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이는 젠이충이 중국공산당(중공) 법원으로부터 세 번째로 불법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녀는 이미 항소했다. 젠이충은 올해 63세이며,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젠이충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의 진상을 알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중공 요원의 괴롭힘, 감시, 납치, 감금을 당했고, 세 차례 불법적으로 선고받아 누적된 부당한 형기가 9년 반에 달한다.

지린성 바이산시 푸쑹현 루수이허진 파룬궁수련자 위안수팡(袁淑芳)은 2025년에 납치돼, 외부에는 계속 그녀의 후속 소식이 없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창춘시 여자감옥에 감금돼 있다. 그녀가 중공 사법 시스템에 의해 모함받은 구체적인 과정과 감옥 내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만주족인 위안수팡은 올해 72세이며, 두 차례 불법적으로 구류됐고, 구류소와 공안 분국 경찰의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다. 위안수팡이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을 당하는 기간에, 남편은 병에 걸려 한 달 넘게 입원했고, 아이는 겨우 십 대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남편은 장기간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병을 얻어 2013년에 불행히 세상을 떠났다.

2026년 7월 15일, 랴오닝성 다롄시 진저우구 파룬궁수련자 잔용잉(戰永英)은 여든이 넘는 고령임에도 푸란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8개월형을 선고받고 6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아울러 그녀의 퇴직금은 8월부터 8개월간 지급이 중단돼 노인의 생활은 경제적 보장을 잃게 됐다. 잔용잉은 올해 86세로 2023년 4월 6일 아침 6시 30분, 다롄시 진저우구 잔첸 파출소 경찰 7~8명이 잔용잉의 집으로 들이닥쳐 잔용잉을 협박해 파출소에 데려갔고, 구치소로 보내졌고, 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했다. 비록 잔용잉이 집에 돌아왔지만 진저우 잔첸 파출소 경찰은 계속해서 은밀히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해 사법 절차로 잔용잉 노인을 모함했다.

2026년 1월 6일, 산둥성 지난시 리청구 공안분국은 파룬궁수련자를 장기간 미행하고 감시한 후 일제히 검거 작전을 펼쳐, 단체로 파룬궁 주요 저서인 ‘전법륜(轉法輪)’을 법공부했다는 이유로 최소 10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중공 공안 계통이 박해 정보를 엄격하게 봉쇄해 최근에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중 한 수련자인 70세 가까운 하오광핑(郝廣萍) 노인이 장추 법원에서 비밀리에 1년 7개월형을 선고받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으며, 전체 사법 과정은 지금까지도 불분명하다. 당시 납치된 파룬궁수련자는 70세에 가까운 하오광핑, 77세의 하오광쥐(郝廣菊), 리청구 물가국 전 부국장인 73세 자오상하이(趙向海), 지강(濟鋼) 설비제조회사 전 기동과 과장이자 엔지니어인 82세 류쓰탕(劉嗣堂), 70여 세의 판쥐안(潘娟)과 70여 세의 후화(胡華)다.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의 74세 파룬궁수련자 저우수화(周淑華)는 2026년 5월 6일 다시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로 넘겨졌고, 6

월 하얼빈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감옥에 들어갈 당시 그녀는 고혈압이 심각했으나 여전히 수감됐고, 현재 감옥 병원에 감금돼 있다. 저우수화는 이에 앞서 2023년 9월 12일 정양 파출소에 납치됐고, 고혈압으로 인해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룡사구 검찰원으로 모함을 받았다. 2025년 10월, 젠화구 법원은 그녀에게 2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하고 5천 위안을 갈취했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85세 파룬궁 수련자 젠통쿠이(甄同魁)씨는 주민들에게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6년 1월 설을 앞두고 구이양시 난밍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구이양시 난밍구의公安·검찰·법원으로부터 사법적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젠통쿠이는 병든 몸을 이끌고公安·검찰·법원 기관을 오가며 관련 이의신청 자료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 과정은 매우 힘겨웠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젠통쿠이는 장기간 이어진 박해 속에서 2026년 4월 28일 세상을 떠났다. 2024년 12월 24일, 경찰은 젠통쿠이의 자택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가택을 수색했다. 경찰은 그가 진상 자료를 배포한 일이 누군가에게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관산후公安분국으로 강제 연행해 주거감시 조치를 취했다. 2025년 6월 9일, 관산후公安분국은 젠통쿠이 사건을 구이양시 난밍구 검찰원으로 넘겼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난밍구 검찰원은 그를 난밍구 법원에 불법 기소했다.

투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고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우리 법공부 팀 수련생들은 2017년부터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에 참여하기 시작해, 올해로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농촌 대법제자들입니다. 투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들 처음에는 ‘수련을 잘하지 못해 감히 쓰지 못하겠다’거나 ‘학력 수준이 낮아 쓸 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수련생들은 서로 격려했습니다. 사부님의 도움 아래, 저희는 원고를 꾸준히 쓰는 과정에서 겹겹의 어려움과 저항을 극복하며 매번 성공적으로 중국법회 투고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더 이상 교류 원고를 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를 쓰는 과정이야말로 자신의 수련 상태를 되돌아보고 법 속에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팀 내 대부분 수련생이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련생들은 매우 진실합니다. 매번 투고할 때마다 자신의 진실한 수련 상태와 깨달음을 진지하게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는데, 글이 매우 소박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크게 울립니다. 10년 동안 팀 내 많은 수련생의 교류 원고가 명혜망에 발표됐고, 이는 수련생들의 수련에 대한 신심을 높여줬습니다.

자신의 수련 심득을 더 잘 써내기 위해 저희는 명혜망의 수련 교류 원고를 더욱 정성껏 읽었습니다. 첫째는 대법제자들의 확고한 정념과 심성을 제고하는 과정과 깨달음을 배우기 위함이고, 둘

째는 수련생들이 글을 쓸 때의 구조, 문장, 단어, 글자 사용을 배워 자신의 글쓰기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투고에 참여한 후, 지역의 일부 수련생들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함께 모여 소규모 수련 심득교류회를 열기도 합니다. 수련 심득교류 속에서 저희는 비학비수하며 다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투고할 때는 모두 자신이 직접 손으로 원고를 다 쓴 뒤, 지역의 다른 수련생이 타이핑하고 원고를 수정해 명혜망에 보냈습니다. 올해 법공부 팀 수련생들은 다 함께 노력해 컴퓨터 기술을 배웠고, 교류 원고를 쓸 때 직접 타이핑하며 진지하게 오타를 찾았습니다. 수련생들은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남을 위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부님 말씀을 들어 편집 수련생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그들의 시간을 덜 빼앗아야 합니다.”

명혜망 중국법회 투고에 참여해 온 10년 동안, 저희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무엇을 쓸지 조금씩 고민했고, 교류 원고를 쓰는 방법을 조금씩 배웠으며, 글을 편집하고 교정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했습니다. 저희는 매번 투고하는 과정을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책임과 사명으로 여기고 더욱 엄숙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련생이 명혜망 중국법회 투고에 참여해 이 소중한 수련의 기연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타적인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개인의 수련 증차가 제한적이니,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캠퍼스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선원을 널리 알리며 착실히 수련하다

글/ 캐나다 서부 청년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청년 대법제자이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수련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선원을 소개했던 몇 가지 경험을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일들은 그저 제가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하고, 오해와 비방에 직면했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그 속에서 저의 아주 깊은 집착심이 많이 드러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동시에 법의 지도와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자신을 승화시켰습니다.

1. 조롱받을 때 심성을 지키지 못하다

8학년 때,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선원, 혹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일부 중국 유학생들의 조롱과 배척을 받았는데 그들은 중공 악당의 거짓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위험하고 광신적이며 심지어 ‘정신이 비정상적’인 것을 선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어렸기에 어떻게 지혜롭고 평화롭게 진상을 알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동요돼 그들과 큰 소리로

논쟁하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서둘러 증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대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흥분할수록 그들은 더욱 우습게 여겼고, 한술 더 떠서 더욱 더럽고 악독한 말로 사부님과 대법을 비방했습니다.

당시 저는 몹시 억울하고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문제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법공부를 하고 안으로 찾다 보니 비록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긴 했지만 저의 흥분, 쟁투심, 승복하지 않는 마음 역시 그에게 ‘불난 데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화로움, 이성, 자비로 그의 선념을 일깨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저를 감정적이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이런 이익 앞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원망 앞에서도 웃음으로 이 일체를 대하며, 모순 중에서도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이것은 속인으로서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관(關)을 넘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이다.”(미국중부법회 설법)

이 단락의 법은 저에게 진정한 수련이란 아무도 저를 자극하지 않을 때 자신이 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받고 오해받고 공격받을 때도 심성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임을 보게 해줬습니다.

저는 또한 자신이 중공의 거짓말에 세뇌된 그 중국 학생들에 대해 원망심이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적대적인 사람으로 여기며 어리석고 악의적이며 말도 안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수련인은 적이 없으며 누구도 대법의 적이 될 자격이 없다.”[정진요지3-세간을 향해 바퀴

(輪)를 돌리노라]

만약 제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적으로 여긴다면, 제가 하는 말은 자연히 방어적이고 원망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의 선념을 일깨울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를 논박하고 억누르며 제가 옳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상을 알려서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2. 인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다

또 한 가지 경험은 제가 속인의 인정과 사교적 지위를 추구하는 집착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8학년 때, 저는 9학년 학생 무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윗 학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제게 꽤 ‘멋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가끔 방과 후에 저희에게 밀크티나 맥도날드 음식을 사다 줬는데, 저는 속으로 제 ‘지위’도 덩달아 높아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몹시 신경 썼고, 성숙하고 재미있으며 무리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베이징에서 온, 정치와 토론에 능한 9학년 남학생 한 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성적도 좋았으며 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파룬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심지어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이야 저는 그가 말하는 이른바 ‘중립’이 사실은 조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공이 파룬궁을 공격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날조하고 이용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토론에 능한 입담으로 대법과 사부님을 악독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중학생이었기에 그의 능숙한 정치적 언어와 토론 방식에 직면해 자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논쟁해도 소용없었고, 설명해도 그는 듣지 않았으며, 다른 친구들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덩달아 야유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집중 공격을 받고 ‘괴짜’로 낙인찍혔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 저는 때로 매우 격렬하고 통제되지 않은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상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파룬궁에 대한 그들의 오해가 ‘증명’됐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다른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농담을 하고 속인의 화제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제게 붙인 꼬리표를 잊어버리길 바랐습니다. 이때 저는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것을 잊은 채 그저 남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 영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번은 그가 종교에 관심이 있다며 ‘전법륜(轉法輪)’을 읽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몹시 흥분했고 드디어 그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그에게 책을 선물했고 심지어 특별히 포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파룬궁을 비판하는 아주 긴 글을 썼습니다. 글은 구조가 잘 짜여 있었고 정식 분석 글과 매우 흡사했지만, 그는 사부님께서 법 속에서 말씀하신 일부 초범적인 내용과 뱀 부체(附體)를 청리하신 내용 등을 단장취의(斷章取義)해 대법을 조롱하고 사부님을 공격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에게 책을 준 것을 깊이 후회했고, 그에게 대법을 공격할 자료를 더 많이 제공했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이야 저는 그에게 책을 준 것은 잘못이 아니며, 잘못된 것은 제 안에 결과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섞여 있었다는 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책을 읽은 후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길 바랐고, 그의 변화가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길 바랐습니다. 그가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자 저는 제가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당신의 마음이 만일 속인의 마음에 이끌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각지 설법 10-맨해튼 설법) 이 말씀은 제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기점에 선 것이 아니라, 승부를 겨루고 체면을 다투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리는 것이 토론이 아님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자신이 아는 것이 많아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내가 옳다고 인정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상을 알리는 목적은 한 생명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자신의 미래를 배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제 마음속에 원망, 두려움, 쟁투심,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수호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설령 말 자체는 옳을지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비와 순수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3. 고등학교 음악부에서의 새로운 시작

지난 몇 년간 비틀거리며 수련하고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고 안으로 찾았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제 곁에 몰려들지 않았고, 제 마음속 압박감도 많

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선원 광고를 매우 열성적으로 전달하고 학교에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진실했지만 거기에는 환희심과 서둘러 성과를 얻으려는 조급한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즉시 진상을 깨닫고 즉시 흥미를 보이며 즉시 표를 사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제가 충분히 많이, 충분히 열정적으로, 충분히 힘주어 설명하기만 하면 남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순수하고 바른 정념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4. 한 합창단 친구의 반응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음악부와 합창단에 가입했고, 이곳에서 많은 새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중 한 명은 합창단의 선배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재능 있는 가수이자 음악가였습니다. 우리는 노래와 공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선원 광고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할 준비도 하지 않았고 큰 기대도 품지 않았으며, 그저 친구에게 정보를 공유하듯 그녀에게 보냈을 뿐입니다.

뜻밖에도 그녀는 곧바로 들떠서 제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벌써 나랑 우리 엄마 표 예매했어!”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선원을 소개할 때면 흔히 설명을 많이 해야 했고, 그래도 간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설득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척 기뻐고 심지어 ‘내가 한 사람을 설득해 선원을

보게 하는 데 성공했구나’라는 한 가지 생각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즉시 저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저 메시지 하나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명백한 일면이 일찍부터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단지 누군가가 문을 살짝 밀어 열어주기만을 필요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

이 일은 제가 이 법 구절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체득하게 해주었습니다. 제자로서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입을 열어 진상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생이 감동받을 수 있을지, 인연이 어떻게 성숙할지는 사람의 능력으로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원을 관람한 후 그녀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제게 말했고, 소셜 미디어에도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공연에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으며, 선량함도 있고 자비로움도 있다면서 그저 기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아주 깊은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가이자 시각 예술 방면에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녀는 무대 예술을 매우 높이 평가했고, 현장의 색채가 광고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장엄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를 더욱 감동하게 한 것은, 그녀가 그저 표면적인 아름다움만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사람들이 하늘을 믿고 신성을 믿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가사 내용의 함의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이 낙후되거나 우스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안과 도덕적 힘,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특히 마지막 막을 언급하며 재난, 질병, 정치적 혼란, 폭력이 세계를 휩쓸 때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보게 해주는 것은 바로 신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메시지는 보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 혹은 서로 다른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선량함, 희망, 자비, 신성에 대한 동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저를 무척 감동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선원을 널리 알릴 때 늘 제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설명을 완전하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원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제게 선원의 힘이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묘사하는지에 달려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책임은 그저 인연 있는 사람이 선원 극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친구들이 그녀가 선원을 보러 간 것을 비판하며 듣기 거북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틀림없이 화를 내며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 사람들이 공연을 보지도 않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 시각은 편협할 뿐만 아니라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느낀 것을 믿었습니다.

한 속인이 비방에 직면했을 때 그토록 평온하고 맑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자신에게 묻게 했습니다. ‘수련인으로서 내가 똑같은 공격을 받았을 때 속인보다 더 흔들림 없이 안정될 수 있을까?’

그 후 그녀는 제게 꿈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치 선원의 첫 장면에 나오는 천국 세계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전통 복장을 입고 장엄하고 신성한 경지 속에 서서 창세주 앞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겠다는 서약을 하는 듯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우리가 모두 아는 합창단의 한 남학생이 붉은색 전통 복장을 입고 옆에 서 있는 것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층층이 아래로 내려가 마지막에는 고대 중국 궁정 같은 곳에 도착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련인이 아니었기에 묘사할 때도 그저 자신의 언어로 기억을 짜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신기한 현상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람과 대법의 인연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꿈 자체에 흥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자신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은 순수했는가? 내가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를 위해 그렇게 했는가?’

5. 두 절친이 선원을 관람하다

저에게는 두 명의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6학년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이고, 다른 한 명은 8학년 때 알게 된 친구로 우리 세 사람은 형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종종 길에서 웃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이 우정 속에서도 저는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소박하고 명랑하며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유행을 추구하거나 나

서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나’였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며, 저를 필요로 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이 두 친구를 선원 관람에 초대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는 선원이 왜 저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아주 궁금해했는데, 제가 그의 께가에 대고 몇 년 동안이나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옷을 좀 정식으로 입고 예쁘고 성대한 공연을 보러 가기를 무척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저 10학년 학생이었기에 표값이 그들에게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용 일부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저는 매일 남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서 제게 약간의 보수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는 친구가 선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일면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찾아 보니 그 속에 ‘일을 성사시키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섞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나면 분명히 선원이 너무 좋았다고 말할 테고, 그러면 내 안목과 고집, 내 노력이 모두 옳았다는 것도 증명될 거야.’

저는 문제는 제가 기꺼이 시간과 돈을 지불하려 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표를 사도록 돕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잘못된 것은 제가 그들이 갈 수 있는지, 선원을 좋아하는지를 저 자신을 검증하는 결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학생의 부모님은 훈육이 매우 엄격하셨기에 그녀가 밤에 남학생 두 명과 함께

나가는 것을 안심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조금해져서 즉시 각종 방법을 생각했지만 그 방법들은 모두 통하지 않았고, 제 마음은 갈수록 더 다급해져 심지어 직접 그녀의 부모님을 설득하러 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으로 그녀 부모님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하나의 ‘장애물’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심지어 농담 삼아 그녀에게 사실이 아닌 말로 부모님의 걱정을 불식시키게 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이미 진(眞)에서 빛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이 일을 너무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저는 제가 두 친구를 극장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제 고집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며, 신성한 일은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해선 안 됩니다. 겉보기에 좋은 목적이 제가 진선인(眞·善·忍)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는다(無求而自得).”(시드니법회 설법)

저는 자신이 속인의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계획하고, 추진하고, 설득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며, ‘순리에 따른다’는 말로 나태함과 두려운 마음을 덮어 감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는 반드시 강요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며, 일이 꼭 제 생각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선 안 됩니다.

예전에 저는 쇼핑몰 매표소에서 선원을 널리 알릴 때도 자주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소개해 줘도 줄곧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마땅히 알려야 할 것을 똑똑히 알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발라야 한다는 점임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정념을 발하는 것은 남이 제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란을 제거하고 중생의 명백한 일면이 거짓말에 가로막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어코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마음을 서서히 내려놓은 후, 일은 오히려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 여학생의 부모님은 그녀가 선원을 보러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 속의 구체적인 원인을 알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과를 제 공로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마음을 바르게 다잡고 더 이상 ‘내가 꼭 성사시켜야 해’라는 데 집착하지 않았을 때 일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친구 모두 선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저는 그들이 보러 간 그 시기에 주변에 선원과 파룬궁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선원은 사교(邪教)다.’ 같은 꼬리표는 또래들 사이에서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반복하는 말이 돼 있었습니다.

저를 감동하게 한 것은 그 여학생이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원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몹시 공감한다며, 그 무용수들이 신앙, 전통, 선량함을 표현하고 있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마음속 소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욱 크게 감동시킨 것은 바로 제 그 오랜 친구였습니다. 과거 중학교 시절, 다른 사람들이 파룬궁과 선원을 공격할 때 그는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감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일 때문에 좀 실망하기도 했고, 그가 제 가장 좋은 친구이니 당연히 저를 지지해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실 제가 우정과 중생이 스스로 진상을 깨닫는 것을 한데 뒤섞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저는 선원을 비방하는 게시글 아래에 그가 자발적으로 댓글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볼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저 자신이 직접 선원을 봤는데 공연의 메시지가 평화롭고 긍정적이라고 느꼈으며, 그런 ‘비방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친구가 제 편에 서 주기를 바랐고 마치 그러면 제게 지지와 위안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제가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보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말을 한마디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중생의 진정한 선택은 우정, 압박, 체면이나 논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진상을 똑똑히 알리며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심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저의 집착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慈悲(츠뻬이)의 힘은 일체

바르지 못한 요소를 해체시킬 수 있다.”(각지 설법 10-맨해튼 설법)

이 일을 통해 저는 자비란 중생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지, 그들을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물로 여기는 것이 아님을 더욱 깊이 체득했습니다.

맺음말

저는 진상을 알리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워야 함을 체득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원망심을 가져선 안 되고, 망설이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급해해선 안 되며, 받아들이고 칭찬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환희심과 자기만족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제 친구들이 선원을 관람할 기회를 갖도록 자비롭게 배치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깊이 숨겨두었던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을 추구하며 결과를 추구하고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을 보게 해준 이 경험들에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조급함과 자아를 조금 줄이고 이성, 지혜, 자비를 조금 더 갖추어 진상을 알리는 가운데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가운데 사람 마음을 닦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없던 대법 어린이 제자에서 점차 비교적 성숙한 청년 대법제자로 성장하기까지, 줄곧 자비롭게 보살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제 현재 층차에서의 작은 체득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캐나다 밴쿠버 법회 원고)

한 번의 급여 인상으로 숨겨진 집착심을 발견하다

글/ 캐나다 서부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수련생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 측면의 수련 경험과 체득을 교류하려 합니다.

1. 한 번의 급여 인상으로 숨겨진 집착심을 발견하다

급여 인상 문제에 관해 저는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 급여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지요”라고 답했습니다. 매년 저희의 급여는 정해진 폭에 따라 인상되지만, 올해 저는 예년보다 인상 폭이 더 크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심지어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이메일 초안을 또 작성해 발송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련이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그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매니저의 딸이 출산 중이었기에, 이런 시기에 그녀에게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월요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원에서 연공을 마치고(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법공부를 한 후, 저는 어쩌면 제가 본래 제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만약 제가 그것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

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법공부를 마친 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왜 이토록 깊이 숨겨진 집착심을 진작에 인식하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 다시 ‘전법륜(轉法輪)’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마 내일 당장 더 큰 폭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그 메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의 모든 세포가 사부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셔서 제가 하마터면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정말이지 수련의 매 걸음마다 저희를 이끌어주십니다.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사람의 관념은 제가 더 큰 폭의 인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각도에서 보면 모든 것은 정반대입니다. 저희는 정진하며 마음을 닦아야지, 속인 사회의 기준으로 자신을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을 인식하기도 어렵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더 높은 층차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부님의 자비로운 이끄심 아래 제가 이 점을 깨달을 수 있어서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제 수련 중의 매 걸음을 늘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법공부와 안으로 찾기를 통해 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아직 닦아내지 못한 많은 집착심을 수련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2. 공원에서 파룬따파 공법을 연공하다

저는 또한 우리집 근처 공원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공법을 연공할 때 겪었던 몇 가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공원에 가서 연공합니다. 공원에는 사

람들이 많은데, 어떤 이는 조깅을 하고 축구팀이나 부모님을 따라 온 아이들도 많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일하는 유치원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축구를 하다가 종종 저희 쪽을 바라보며 저희가 연공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마도 사부님께서 대법과 인연 있는 이 아이들이 대법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비롭게 안배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공하는 동안 몇몇 아이가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중 한 아이에게 작은 연꽃을 선물했고, 그의 부모님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희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먼저 정념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어 날씨가 아주 좋아졌고, 저희는 순조롭게 5장 공법 연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격려와 보호를 깊이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공공장소에서 연공할 때마다 단정한 옷차림과 바른 몸가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법을 대표하며, 세인들에게 대법을 알아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은 제 연공 매트를 가지러 차에 갔을 때, 웬지 모르게 전단지 한 장과 작은 연꽃 한 송이를 챙겨 연공을 시작하기 전 근처 벤치에 올려두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연공을 막 마쳤을 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옆을 지나가는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저희가 연공하는 모습을 지켜

봤습니다. 저는 즉시 전단지와 작은 연꽃을 집어 들고 그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그 부인이 아이에게 페르시아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란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저도 이란 사람이라고 말하며 페르시아어로 그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대법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박해 상황도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차에서 전단지와 작은 연꽃을 꺼내온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자비롭게 안배하신 인연 있는 만남이며, 제게 그들에게 진상을 알릴 기회를 주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또한 제가 수련에서 더욱 정진해야만 제 책임을 더 잘 이행하고, 사부님을 도와 인연 있는 중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전단지를 집어 들지 않았거나 제 생각이 집중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 가족과 대화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은 제게 대법제자로서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항상 정념을 유지하고 생각을 집중하며 자신을 잘 닦아야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해야 할 일을 잘해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3. 바이라이루 쇼핑몰 선원 부스에서의 경험

저는 밴쿠버 바이라이루 쇼핑몰 선원 부스에서 겪은 몇 가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바이라이루 쇼핑몰 부스에 가서 이란 커뮤니티에 선원을 소개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올해는 모두 아시

다시피 이란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란 동포들에게 먼저 다가가 선원을 소개하려 했을 때,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혹은 그들이 이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는 공연을 보러 오라고 초대한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점차 진정될 때까지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조금 호전된 후 마침내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이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에 저의 감정 상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련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힌 후, 저는 자비로운 사부님께 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사 기도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법공부, 연공, 그리고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함을 통해 저 자신을 제고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약 한 달 후,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뒤 많은 사람이 더 희망을 느끼는 듯했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이라이루 쇼핑 몰에 갈 때마다 수련생들은 “더 자주 오세요. 당신이 여기에 있을 때면 사람들이 당신 손에서 전단지를 잘 받고, 대화도 기꺼이 나누려 하니까요”라며 저를 격려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에게 선원을 소개하고 티켓 가격과 공연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많은 이란 동포들에게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 장애가 되던 어떤 요소들이 제거된 것 같았고,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역시 풍부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공산당(중공)이 어떻게 중국의 전통문화를 파괴했는지 이야기할 때 비교적 소통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중국 5천 년 문명의 아름다움, 다채로운 민족 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의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스 앞에 오랫동안 서서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한 이란 남성이 부스 옆을 지나갈 때 저는 그에게 선원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즉시 “아니요, 그들은 분신자살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선전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이 중공의 거짓 선전에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중국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수련생을 불러 그와 대화하게 했습니다.

이 수련생은 그에게 중공이 어떻게 무신론을 선전하고 인과 윤회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람들이 전통적인 도덕 가치관을 버리도록 부추기는지 등 중공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심지어 독성 유아용 분유를 생산하거나 이익을 위해 장기적출에 가담하는 등 매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당시 아직 중국에 있었고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 중국을 떠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련생이 그와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정말 기뻐 보였습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인연 있는 사람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았음을 느꼈

습니다.

저는 이 인연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해주신 자비로운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년 선원은 저희에게 중생을 구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선원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선원 공연을 관람한 후, 저는 선원의 장엄함과 비범함을 진정으로 체득했습니다. 선원은 해가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져 정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이토록 신속하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그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대 위 신의 모습과 아름답게 디자인된 의상은 마치 저를 천국 세계로 이끌어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공작춤과 황금색 의상을 입고 춘 그 춤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공연은 또한 제게 많은 수련상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 연습하는 무용수들을 보았을 때, 저는 무대 위의 모든 장면과 모든 세부 사항이 제게는 심오한 수련 수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수련인으로서, 저는 이분들이 쏟은 이 모든 노력이 마땅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캐나다 밴쿠버 법회 원고)

진선인에 따라 심성을 높여 실업이 가져온 시련을 넘기다

글/ 캐나다 서부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현재 층차에서 실업이라는 이 고비를 겪을 때, 어떻게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심성을 제고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체득을 교류하려 합니다.

저는 원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도시에서 에너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즉 재직한 지 3년 반 만에 해고됐는데, 이유는 회사가 사업 방향을 조정했고 제 영어 실력이 새로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변고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더 이상 진상을 알리고 선원을 홍보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 안으로 찾아 자신의 실업을 초래한 부족함을 찾아내다

이 일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제 수련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속인 사회에서 저는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지 않았고, 전문 자격 인증도 오랫동안 마무리 짓지 못해 업무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수련 방면에서 저는 회사에서의 여유 시간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고 선원을 소개하는 데 능동적이지 못했습니다.

실업했을 때 아내는 매우 초조해했고 제가 파룬궁에 빠져 아내의 여러 차례 당부를 무시한 채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법을 실증하기 위해 저는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동시에 저 자신이 마땅히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저는 마음 깊이 새기려 합니다.

2. 명예와 이익에 대한 마음을 똑바로 인식하고 없애 선(善)과 인(忍)을 닦아내다

실업한 3개월 동안 저는 50여 건의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고, 경제적 압박이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번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것이 제가 심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임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는 평소의 침착함을 전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냉정을 되찾은 뒤 아들이 저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수련하시면 그게 무슨 수련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바로 제 이런 상태를 이용해 근본적으로 제 집착을 파헤쳐주셨습니다.

첫째, 제 마음은 자비로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고, 입장을 바꿔 생각할 만큼 충분한 선한 마음이 부족해 타향에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아내의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 저희 둘은 헛되이 구직 이력서를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생계 수단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아직 수련하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대인(大忍)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격렬한 충돌 앞에서 저의 모습은

속인과 다를 바 없이 지기 싫어하고 다투기 좋아했으며, 심지어 상대방을 억누르려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속인만도 못했으니 수련인이라고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평소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저는 대부분 담담히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예에 대한 제 집착과 마음속 깊은 곳의 정(情)이 이성을 눌러버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남이 저를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명예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지 못한 채 칭찬받기만을 바라고 날카로운 질책은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이 있기 때문인데, 화를 냄도 정이요, 기뻐함도 정이요, 사랑함도 정이요, 증오함 역시 정이요, 일하기 좋아함도 정이요, 일하기 싫어함 역시 정이며, 누가 좋고 누가 나쁘게 보이며, 무엇을 하기 좋아하고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 일체가 다 정이라, 속인은 바로 정을 위해 산다. 그렇다면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한 초상(超常)적인 사람으로서는 이런 이치로 가늠할 수 없으며 이런 것을 돌파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情) 중에서 파생되어 나온 많은 집착심을 우리는 그것을 담담히 보아야 하며 최후에는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전법륜)

만약 제게 그 명예와 정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면 남이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명예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제가 인(忍)을 지키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을 실천하지 못했기에, 선한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 현재 층차에서 저는 오직 이 명예욕을 철저히 없애야만 비로소 인과 선을 더 잘

뉘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오직 법공부에 마음을 더 많이 쓰고 대법의 법리에 따라 행해야만 비로소 오랫동안 제 마음속 깊이 숨어 있던 이 명예욕을 없앨 수 있습니다.

3. 속인 사회에서 수련의 길을 잘 걷고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돌파해 진(眞)을 뉘어내다

5개월 넘게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수련에 큰 허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인 사회에서 수련하는 사람이 마땅히 다해야 할 일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한 법문,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이 부분은,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며 최대한 속인과 함께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물질이익에서 당신에게 그 무엇을 실제로 잃으라는 것이 아니다.”(전법륜)

어쩌면 바로 이 허점이 제 수련의 길에 있는 이 난(難)을 가중시켰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때가 이르러 제 업력으로 생긴 난을 좀 감당해야 했던 것일 수도 있으며,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제자로서 저는 오직 사부님의 안배만을 인정하고 따를 뿐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하나의 경종이며, 속인 사회에서 수련할 때 좁디좁은 수련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일깨워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는 제가 난 속에서도 확고하게 계속 수련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하나의 고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노동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대법제자는 속인 사회에서 늘 그런대로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줄곧 여겨왔

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 시련은 사실 제가 대법을 수련하는 초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속인 사회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함인지 아니면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하기 위함인지를 보려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이 교훈을 똑바로 인식한 뒤, 저는 3개월 넘는 시간을 들여 여러 해 동안 미뤄왔던 전문 자격 인증 신청을 온 마음을 다해 마쳤습니다. 저는 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사부님께서 내게 이 일을 그만 두게 안배하신 것은, 만약 이 기간에 계속 출근했다면 고속도로에서 겪었을지도 모를 심각한 교통사고를 피하게 하시려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사실 우리 가족의 복일지도 몰라요.” 저는 사부님께서 언제나 제자를 보호하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계속 수련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한때 제 학력을 숨기고 더 낮은 직급의 자리에 지원해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일을 반성하면서 저는 제가 돈 버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수련 중 ‘진(眞)’의 원칙을 소홀히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전문 배경을 밝힐 때 정직하지 못했고, 본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개인적 이익에 대한 집착이 제 마음속의 진을 가려버렸습니다. 이런 개인적 이익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마땅히 없애야 할 집착이 아니겠습니까? 제 현재 층차에서 저는 이런 속인의 탐욕을 없애야만 비로소 ‘진’을 잘 닦아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제가 어찌 저 혼자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수련의 길은 매우 좁아서 저는 대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득실심을 없애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 진짜 학력 및 경험과 부합하는 구직 신청만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전문 연수 과정에도 등록해 제 전문 능력을 높여 구직이 더욱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은 뒤, 저와 아내는 우리가 각자 배달 서비스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자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배달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등록했고,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음식을 배달하는 길에 인연 있는 분들에게 직접 대법 진상 자료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첫자리에 두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빈 차로 돌아와야만 다음 주문을 받을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심야에 외딴 지역으로 배달하는 주문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런 20~40km에 달하는 장거리 배달에서 거의 예외 없이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마침 방향이 맞는 주문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빈 차로 다니는 거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4. 잃음과 얻음에 대한 체득과 인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는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에도 지원했습니다. 고용주가 제게 이전 부서 담당자의 추천을 요구했을 때, 제 첫 생각은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회피하고 싶다는 것이었

고, 심지어 선원을 함께 홍보하는 수련생을 추천인으로 삼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체면을 중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았고, 훌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런 것들보다 훨씬 크고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 속인 사회에서의 ‘잃음’은 도리어 저와 아내가 심성을 높이는 데 있어 ‘얻음’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말 얻기 힘든 기회였으며, 제가 속인 속의 그런 부정적인 집착들을 내려놓게 해줬습니다. 비록 저는 지금까지도 제 전문 분야의 일자리를 아직 다시 찾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시직에 의지해 힘들게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런 고비에서 벗어났으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더 이상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사부님께서 제 수련의 길에서, 그리고 ‘진선인’이라는 이 우주의 특성에 따라 심성을 높이는 길에서 저를 위해 해주신 가장 좋은 안배라고 시종 굳게 믿습니다.

이상은 제 현재 층차에서의 개인적인 수련 체득이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수련의 매 걸음마다 저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신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캐나다 밴쿠버 법회 원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글/ 밴쿠버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중생을 위해 왔습니다

아마 2023년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화 ‘우리는 원래 신이었다’가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 주제곡이 먼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당신을 위해 왔으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리”였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얼굴을 가득 적셨습니다.

바로 그 며칠 사이 하루는 법공부를 하다가 ‘맨해튼 설법’을 배우게 됐는데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수련은 다만 한 대법제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에 불과한 것으로, 사부를 돕고 중생을 구도하고 법을 실증하는 것만이 비로소 한 대법제자의 진정한 목적이며, 비로소 사전(史前)의 서약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은 마치 강력한 에너지에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부님께서서는 대법제자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고, 저도 줄곧 이런 설법을 배워오며 다 이해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득 이전의 이른바 이해라는 것이 사실 매우 얇은

이해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저는 줄곧 열심히 수련하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생을 구한 이유는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자비심을 품어야 하고 중생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기에 사부님을 도와 열심히 중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는 지금까지 이 관계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이런 생각은 사실 여전히 사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왜 중생을 구해야 할까요? ‘내’가 수련해야 하고 ‘내’가 향상해야 하니 그래서 ‘내’가 중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여기서 제게 대법제자의 진정한 목적은 ‘사부를 돕고 중생을 구도하고 법을 실증하는 것’(각지설법10-맨해튼 설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며, 제가 수련해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부님을 돕고 중생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자신을 잘 수련해야만 비로소 그 정념을 가질 수 있고 사부님을 도와 진정으로 제 중생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세상에 내려오기 전 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고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한 구절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중생을 위해 왔고 내 생명은 중생을 위해 존재한다.’

저는 자신에게 일깨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기점이며 항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 중의 언행 하나하나, 일사일념(一思一念)까지 모두 굳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왔고, 나는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

2.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깨닫는 것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나아가 시시각각 실천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길고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선원 공연 보도 기간은 에포크타임스 기자와 편집자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저 후방 지원 업무만 해왔고 저 스스로도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스트레스도 없었으며 저 역시 선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제 생명이 중생을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해, 편집장이 제게 선원 취재에 참여하도록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원 취재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고, 저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중국인만 취재할 수 있는데 관객 중 중국인의 비율은 사실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려운 마음도 컸기에 그 스트레스는 능히 짐작할 수 있었고 저는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중국어만 알기 때문에 십중팔구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당시 여러 명을 동시에 신청했지만 다양한 조건의 제약 때문에 마지막엔 유독 저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이를 악물고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해에는 편집장이 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전체 편집부를 이끌며 뒤에서 지원해 준 덕분에 그제야 겨우겨우 첫해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해에는 보도를 다 마칠 때까지 제가 어떻게 해냈는지조차 몰랐고 머릿속이 온통 멍했습니다.

이듬해 선원 공연을 앞두고 또다시 선원 취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편집장에

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선원 취재를 해야 하나요? 영어를 아는 다른 기자에게 부탁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편집장은 단칼에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힘들게 당신을 신청해 봤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 자신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구워지게 내버려 두어야만 했습니다. 기분이 우울했지만 문득 기독교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신은 요나를 선택해 한 도시의 사람들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런 회피는 자신에게 문제만 일으켰을 뿐 아무런 이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책임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행했을 때, 비록 천 리 먼 길이었고 그 도시의 언어도 몰랐으며 사실 그저 서투르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했을 뿐이었지만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그 도시 사람들을 구한 것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께서 그에게 하라고 시켰다면 분명 그가 해낼 수 있는 일이었고 그가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반드시 완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어 문제든 다른 이유든 사실은 모두 사람의 관념으로 재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마치 그 말을 듣지 않는 요나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서 내내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책임이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중생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고 오직 이 책임이 제게 가져다줄 어려움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지에만 골몰했던 것입니다.

3. 자신을 실증할 것인가 아니면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할 것인가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지만 취재를 할 때는 여전히 너무나 긴장했습니다. 게다가 교란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저는 자신이 교란당할까 걱정했고 이는 마음을 더욱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곳곳에 조언을 구하러 다녔고 다른 노련한 기자들은 모두 제게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마음을 비우고 싶었지만 도무지 비워지지 않았고 문제의 원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마음을 비울 수 없었고 또 온갖 잡념에 교란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최대한 저 자신을 계속 정념(正念)을 발하는 상태에 두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연이 시작될 때 뭇 신들이 사부님을 따라 세상에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저 역시 그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온몸의 모공이 다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긴장하는데 정말 중생을 위해서인가?’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했음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뭘 하러 왔는가? 네가 남보다 수련을 잘한다는 것을 실증하러 왔는가? 너는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하러 온 것이다.’ 그런 뒤 저는 자신에게 엄숙히 말했습니다. ‘너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너는 대법제자이며 네가 사람들 속에 온 것은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 인터뷰 대상자들은 신께서 그들의 소감을 말하도록 안배하신 것이며 사부님께서 그들

의 입을 빌려 그들 쪽의 중생을 구하려 하시는 것이다. 기자의 임무는 사부님을 도와 인터뷰 대상자의 진실한 소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 자신의 집착과 사심으로 이를 가로막지만 않으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순수한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다른 부분은 인연에 따를 뿐이며 모든 것은 사부님의 안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법공부만큼은 반드시 질과 양을 보장해 완수하도록 자신에게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반복해서 제게 일깨웠습니다. ‘○○, 너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해.’ 저는 끊임없이 자신의 온갖 잡념을 제거했고 제 공간장도 갈수록 순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넷째 날에는 공연이 두 번 있었는데 오전 공연에서는 제가 유효한 취재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비교적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 점심 공연과 저녁 공연 사이의 휴식 시간에 저는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극장에 남아 법공부를 하고 정념을 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마음가짐이 아주 평온했기에 주변에 오가는 사람이 많았어도 저는 여전히 염력을 비교적 집중해 법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원래는 점심을 거르려 했는데 마침 수련생을 만나 음식이 너무 많으니 좀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련생이 준 음식을 먹으며 제자에 대한 사부님의 세심한 보호에 마음속으로 감동했습니다.

결국 저녁 공연 때는 제가 연이어 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을 만났고, 그 공연은 제가 선원 보도에 참여한 이래 가장 많은 기사를 낸 공연이 됐습니다.

4. 의존심을 제거하다

처음 3년 동안 보도를 겨우겨우 해냈다는 것은 정말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체 팀의 지원에 의지해서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묵묵히 제 뒤에서 후원해줬고 녹취를 돕고 기사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2년 차 때로 기억하는데 한번은 제가 홍콩 사람을 취재했습니다. 광둥어를 몰랐기에 인터뷰 대상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고, 돌아와서 녹취해 보니 그녀가 한 말이 너무나 간단해 쓸 만한 부분이 아주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편집부 동료 중에 이 인터뷰 대상자를 아는 분이 있어서 보충 취재를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이틀 동안 일정이 매우 빡빡했기에 저는 당시 이미 몹시 지쳐있었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쉬게 하고 광둥어를 아는 다른 기자에게 질문을 구상하게 한 뒤 인터뷰 대상자를 아는 동료를 통해 그와 연락하게 했습니다. 그 기자는 금세 연락이 닿았고 보충 취재를 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 중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묵묵히 제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뒤에는 크든 작든 수많은 수련생들의 묵묵한 원용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기사 한 편이 나오기까지는 편집부 동료들이 다 함께 수고했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동료들, 나아가 밴쿠버의 모든 수련생과 모든 대법제자가 다 함께 노력해 이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부님과 선원 단원들, 선원의 모든 스태프가 없었다면 선원 공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밴쿠버 수련생들이 표를 홍보할 때 관객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인터뷰 대상자가 없었을 것이며, 만약 제작 파

트 수련생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테고 우리의 취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정체(整體)의 힘을 느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의존 심리 또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편집장에게 그랬는데 현장에서 백스테이지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제 가장 든든한 심리적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녀는 제게 선원 기간에 밴쿠버에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심을 제거하도록 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편집부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경험 부족과 심성이 불안정한 단계를 순조롭게 넘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수련자로서 반드시 제고해야 할 부분임을 의식했고 영원히 남의 보살핌에만 기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련과 경험의 축적을 거친 뒤 올해 제 마음가짐은 이미 많이 안정됐습니다. 저는 사전 작업을 잘 해두려 노력했고 마음속으로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막상 선원 취재를 시작할 때 자신이 훨씬 편안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도 편집부 동료들의 지원은 그리 줄어들지 않았고 편집장은 비록 밴쿠버에 오지 못했지만 뒤에서 조율해주는 것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 지원하러 온 기자들조차 밴쿠버 편집부의 조율과 협력을 몹시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가짐이 예년보다 훨씬 굳건해졌고 더는 그렇게 강한 의존심이 없었기 때문

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제 취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수년 중 가장 좋았고 가장 수월했습니다.

저는 오직 자신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야만 사부님을 도와 더 많은 중생을 구하고 제가 세상에 내려온 서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캐나다 밴쿠버 법회)

발정념을 다시 깨닫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에서 해외 법률 소송을 위해 발정념하자는 수련생의 글을 본 후 곧바로 시간을 조정해 매일 밤 11시부터 약 30분간 발정념하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다른 공간에서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중생구도를 가로막는 사악한 요소를 해체하고 있다.

며칠 전 수련생과 발정념에 대해 교류하면서 여전히 일부 수련생이 이를 중시하지 않고 발정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나는 내 층차에서 깨달은 바를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이 법을 스승으로 삼아 함께 정진하기 바란다!

발정념 통지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일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였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다

우리의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이다. 우리 대법제자는 각자 자신을 찾아봐야 하며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다. “무릇 연공(煉功) 중에 이런 교란, 저런 교란이 나타나면, 당신이 아직도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당신 자신이 원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교란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수련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안으로 찾는 동시에 우리는 이 교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중생구도를 고려해야 한다. 비록 우리에게 누락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법 안에서 최대한 빨리 자신을 바로잡을 것이다. 구세력이 이를 구실로 중생이 대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중생을 파멸시키게 되서는 안 된다!

사부님께서는 이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현재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계속 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 수련생들 자신에게 있다. 발정념을 중시하지 못하는 이런 수련생들이 담당, 책임지고 있는 공간 속은 아직도 사악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원인이다. 그러므로 발정념 이 일을 여러분은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느끼든, 없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당신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사상 중의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신체 범위 내에서 작용을 일으킨다. 동시에 당신은 외재적인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있는 공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당신이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당신을 박해하고 당신을 억제할 뿐

만 아니라, 그것들이 다른 수련생, 다른 대법제자들을 박해한다.”
(각지 설법 2-미국 플로리다 법회 설법)

나는 발정념을 통해 자신의 공간장을 순수하게 정화하는 것이 모든 대법제자에게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자신이 대표하는 우주 체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체계를 순수하게 만들고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이번 정체 차원의 발정념이 자신과 별로 관계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날 대법제자와 관계없는 일이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대법제자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모두 노정이 있는 것이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간 것이다. 되돌아보면 어떤 일은 잘하지 못했는데 다시 보완할 기회가 없다.”(각지 설법11-20년 설법)

자신이 걸어온 수련 과정을 돌아보니 사부님의 이 법이 지닌 무게가 깊이 와닿았다!

어떠한 때든 우리가 모두 안으로 찾아 자신을 잘 수련하고, 어떤 사람 마음이나 관념도 지니지 않은 채 정체(整體)가 요구하는 바를 원용하며, 모든 것을 법을 기준으로 가늠하고 중생구도를 근본으로 삼는다면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바로잡는 동시에 마땅히 구해야 할 생명도 구하게 된다.

평온함과 균형에 대해 말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한동안 목에 사마귀가 잔뜩 돌아나고 입안에도 울퉁불퉁한 것이 솟아올랐으며 머리가 자주 어질어질하는 등 여러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오랫동안 안으로 찾아봤지만 늘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한 느낌이었다.

오늘 문득 깨달았다. 이 세포들이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것은 바로 불평(不平)이 아닌가? 그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한 것은 몸이 불균형하다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물질적인 불평과 조화롭지 못함은 내 마음속이 평온하지 않고 불균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평소 생활 속에서도 이런 불균형한 심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할 때면 늘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투덜대면서 아버지는 왜 일을 좀 해서 부담을 나눠주지 않으시는지 원망했다. 어머니(수련생)가 내게 문제를 지적해주실 때도 겸허하지 못하면서 불평하며 ‘어머니 말씀은 틀렸어요’라고 생각했다. 수련생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제때 자신에게 이런 심성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지 못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구세력이 대법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음을 발견했다. 구세력과 공산악당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늘 박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사부님께서 구세력의 사유에 대해 말씀하신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말한다”(각지 설법 14-2016년 뉴욕법회 설법)라는 부분을 읽고 나는 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할 줄 모르면서 너희는 무엇 때문에 관여하는가? 할 줄 모르면 관여하지 말아야지 굳이 따라와서 함부로 뒤섞어놓는가.’ 이로써 그것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만약 몇 년 전이라면 고압적인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정세가 뚜렷하게 변화했는데도 이런 평온하지 않고 불균형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줄곧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이로 인해 그것이 일종의 물질로 형성돼 표면 신체에 반응해 나온 것이다.

수련은 엄숙한 것이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더욱이 이번 박해 중에서 당신은 정념이 솟아나지 않아 도리어 무수한 원한을 증가시켰다. 중공사당은 매우 나쁜 것으로, 머지않아 반드시 그것을 도태시킬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무엇이 나쁜 사람이고 무엇이 좋은 사람인지 아는가? 당신의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증오이고 악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것이 어떤 생명이겠는가? 행위에서 표현될 것이며 심지어 얼굴에도 표현되어 나오는데, 사람이 당신을 보면 모두 악한 것이다.”(각지 설법 13-2014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

구세력을 대할 때는 사부님 말씀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인정하지 않음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니며 더더욱 증오하는 것과는 다르다. 정념을 굳건히 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되 내면은 평온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자신을 수련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수련생

들에게 박해당했다고 해서 원망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사람 속에서는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자신의 수련 문제를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대법의 기준은 변하지 않으며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선(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제가 대법을 얻었을 때는 마침 아들의 사춘기 반항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이는 공부를 싫어하고 게임에 빠져 온종일 저와 머리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의 앞날이 망가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조급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이를 아주 엄하게 감시하며 때로는 알람을 맞춰놓고 한밤중에 맨발로 가서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잡아내곤 했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낮에 아이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걱정도 돼 남편과 친구들과 함께 오후 내내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더는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부님께 맡기자!’

1. 대법이 반항하던 아이를 구하다

아이가 하룻밤을 집에 들어오지 않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생에 이토록 아이의 속을 썩이고 괴롭혔기에 빚을 받으러 왔구나. 다 그만두자, 상관하지 말자, 스스로 살든 죽든

내버려 두자!’ 하다가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안 돼, 나는 대법제자인데 내가 낳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대겠는가? 이걸 아이에게 무책임한 것이다. 내가 한 번 끌어당겨 줘야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선 안 된다.’ 그러다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더욱 고급적인 생명이 볼 때, 인류사회의 발전은 다만 특정한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함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일생 중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그가 당신의 능력에 따라 당신에게 안배해주는 것이 아니다.”(전법륜) 저는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의 앞날에 너무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게 하면 충분하며, 아이의 인생은 신이 배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트이자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면 때리거나 욕하지 말고, 제가 대화하면 남편이 덧붙이기로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쯤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사부님의 법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대화했습니다. “네 가출은 이미 부모의 한계에 도전한 것이라 우리는 매우 화가 났다. 하지만 너는 아직 아이니까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널 용서한다는 게 네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야. 만약 다음번이 또 있다면, 시간이 허락하면 집을 팔아버릴 것이고 시간이 안 되면 자물쇠를 바꿔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 아이는 당시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후로 다시는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끊지는 못했고 며칠에 한 번씩 아빠가 집에 없을 때면 제게 작은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빠가 있을 땐 맞을까 봐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법리로 아이를 교육하고 소통했습니다. 아이

는 호기심을 보이긴 했지만 법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제가 집에 없을 때 몰래 대법서적을 조금씩 들춰보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에둘러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 제가 답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또 억지를 부리며 눈물을 닦고는 말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재수 없게 이 집에 태어났을까.”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아이가 이토록 은혜를 모르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전처럼 달래기만 하던 교육 방식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달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우리집에 태어난 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수 없는 거다. 네가 우리를 선택했지 내가 널 선택한 게 아니야. 네가 하늘에서 잘 살펴보다가 우리집이 대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어이 우리집에 오겠다고 한 거지. 그렇게 많은 우수한 아이들이 우리집에 오고 싶어 했는데 네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우리가 널 불쌍히 여겨 받아준 거다. 그런데 네가 우리집에 와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은혜 모르는 말까지 하니, 우리가 더 상처받고 더 억울하다! 네가 울 체면이나 있니!” 그 말을 듣자 아이는 눈물도 닦지 않고 작은 눈을 깜빡거리며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내친김에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와 ○○(모두 어릴 적 친구)는 한 명은 너보다 여섯 달 어리고, 한 명은 너보다 다섯 달 어리다. 그 두 집은 모두 그렇게 부자인데 넌 먼저 태어났으면서 왜 거길 안 골랐을까? 하늘에서 보니 그 두 집이 우리집보다 법을 얻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부터 또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거면 나가라. 넌 우리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 제 말을 듣고

아이는 그 후로 우리집에 태어난 걸 후회한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고, 점점 더 좋아지더니 평소 실력을 뛰어넘어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은사님께 감사드리고,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2. 첫 번째로 원망심을 제거하다

제가 속이 좁아서인지 법을 얻은 후부터 줄곧 원망심 때문에 넘어지곤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5일장에 나가 노점을 했는데 운전을 할 줄 몰라 다른 사람의 차를 함께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여성 운전자가 적어 대부분 남성 운전자였습니다. 장사는 갈수록 힘들어졌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저를 이 업계에서 밀어내고 장사를 독점하려 했던 것입니다(사실 세상에 까닭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줄곧 제가 파는 물건을 팔고 싶어 했고, 드러내놓고 혹은 암암리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태워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누구 차를 같이 타면, 저와 그 운전자가 무슨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고 때로는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한 운전자의 아내가 저를 찾아와 “○○씨가 그러는데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요”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때는 막 법을 얻어 수련할 줄도 몰랐고 안으로 참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저에 대해 지어낸 헛소문에 분개했고, 원망심, 억울함, 질투심, 보복심 등 온갖 마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수련인의 상태가 아님은 알았지만 이런 집착심을 저 자신으로 여긴 채 떼어내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해 구세력에게 틈을 타 몸을 박해당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틀어져 걷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업을 소멸하는 줄만 알고 수동적으로 감당하며 2년 넘게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장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했는데, 마침내 ‘불성(佛性)’을 읽을 때 집착을 찾아냈고 수련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정념을 발할 때 사부님의 도움 아래 서늘한 바람이 한 줄기씩 허리와 다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부님께서 좋지 않은 물질을 제게서 떼어내 주신 것입니다. 허리와 다리는 안 아팠지만, 걸을 때면 누군가 당기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몸을 바로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일념을 내보냈습니다. ‘나쁜 물질이 내 걸음걸이를 통제하게 뒤편 안 된다. 나는 대법제자이니 그것을 제거할 것이다. 네가 나를 빼돌려 건네 하려 해도 나는 똑바로 걸을 것이며 네 말을 듣지 않겠다.’ 걸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어 똑바로 잡히지 않으면 아예 서서 걷지 않다가 잠시 후 다시 걸었고, 걷다가 또 기울면 다시 멈췄습니다. 어쨌든 그것에게 통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걷다 멈추고 멈췄다 걷기를 반복하며 일주일도 안 되는 정사(正邪) 대전(大戰)에서 제가 이겼고, 걸음걸이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은사님께 감사드리고,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3. 두 번째로 원망심을 제거하다

예전에 저는 몸이 안 좋았는데, 수련 이후 병이 사라져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저의 변화를 보았고, 많은 이들이 진상을 이해하고 삼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케언니는 줄곧 배척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수련을 잘하지 못해서일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의 수련에도 무척 주의를 기울였고, 때로 올케언니와 저 사이에 심성 문제가 생길 때면 저는 늘 한발 물러서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든 손해를 보든 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며

혼자 우쭐해하기도 했지만, 사부님의 요구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바로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에 사부님께서 제게 큰 시험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노동절에 조카딸이 결혼했는데, 결혼식이 끝난 후 올케언니가 친척과 친구들이 식사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케언니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어르신을 모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월에 제 아버지가 수술하셨을 때도 돌보러 가지 않았습시다). 이유는 노인 냄새를 참을 수 없고 어르신의 생활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모두 몹시 반감이 들었지만, 외부인이 있는 자리인 데다 부모님도 아직 시중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셨기에 아무도 올케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그렇게 찻찻하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막 잠이 들었을 무렵 올케언니가 전화를 걸어와 오빠가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며 저희더러 오라고 했고, 오빠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가보니 올케언니가 오빠를 때려 여기저기 피투성이였습니다. 오빠가 그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올케언니가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올케언니의 여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올케언니는 계속 욕을 퍼부었는데, 욕을 하다 하다 나중엔 오빠의 채팅 건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우리 온 가족을 싸잡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월에 수술하셨을 때 올케(남동생의 아내)가 바쁘게 뛰어다니며 돌봐드렸는데, 올케언니는 돌보러 가지도 않았으면서도 아버지가 올케만 편애한다고 억울해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말이 길어지고 욕할수록 화를 내며 아주 듣기 거북하게 욕을 했습니다. 해묵은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끄집어냈고, 심지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는 작은아버지까지 들먹이며 자기가 작은 아버지께 약을 사드렸으니 작은아버지도 자기에게 빚을 졌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자기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올케언니의 여동생도 끊임없이 끼어들어 자기 언니가 우리집에 시집온 건 격을 낮춰 온 거라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등 떠들었습니다. 저는 올케언니가 이성을 잃은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극하고 싶지 않았고 마음껏 욕하게 내버려 두면서 제 큰 인내심을 수련하는 거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있는 말 없는 말, 진짜 가짜 할 것 없이 올케언니는 꼬박 하루하고도 하룻밤을 욕을 했습니다. 아무도 밥을 못 먹고 모두 기진맥진했는데도 올케언니는 계속 욕을 했습니다. 나중엔 오빠더러 아무 재산 없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저희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갈 때가 되니 또 안 된다며 자기와 오빠 중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말려도 듣지 않더니, 은행에 빚이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빌린 거니 오빠더러 갚으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돈이 없다니 그것도 안 된다며 어쨌든 한 명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팽팽하게 대치하던 끝에 나중에 저와 남편이 상의해, 저희가 올케언니에게 4만 위안을 주고 오빠더러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올케언니는 그것도 안 된다며 4만 5천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4만 5천 위안을 주고 오빠에게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얻어내려고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양심을 저버린 채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심 없이 베푸신 대가가 욕설과 비난이라니, 이것도 아마 저희 일가족이 생생세세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일지 모르

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침표를 찍은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올케언니가 조카 딸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이 1500위안 비는 것 같다고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축의금을 제가 받았기 때문인데, 당시 은행에 입금하려던 것을 올케언니의 제부가 말렸고, 저도 올케언니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세어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축의금을 받은 사람은 총 세 명이었고 저희 모두 장부를 맞췄을 때 틀림이 없었는데, 올케언니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 즉시 올케언니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동생은 말했습니다. “누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다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올케언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70대가 넘어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한바탕 늘어놓았고, 아주 듣기 거북한 말도 했습니다. 고모도 무사하지 못해 올케언니가 다 한 번씩 괴롭혔고, 60대가 넘는 고모는 70대인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실까 봐 걱정하다 애를 태워 병이 나셨습니다.

하지만 올케언니가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짓을 수없이 저질렀다고 생각하자 제 심성은 단번에 곤두박질쳤습니다. 혈육의 정에 이끌려 원망심이 일어났고 게다가 아주 단단히 통제당했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주의식(主意識)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했고, 이것이 수련인의 상태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는 ‘원망’이라는 이 사악한 생명을 도무지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어떤 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은 채 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악자(惡者)는 질투심의 소치로 자신을 위하고, 화를 내며,

불공평하다고 한다. 선자(善者)는 늘 慈悲心(츠뻬이썬)이 있어, 원망도 증오도 없이, 고생을 낙으로 삼는다.”(정진요지-경지) 저는 멈추지 않고 한 번 또 한 번 외웠고, 속으로 외워 안 되면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법을 외우자 이 나쁜 생명들도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고, 당시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식이 강하지 않아 그 ‘괴로움’이 제가 아니라는 걸 분간하지 못해 몹시 고통스러웠으나, 외우고 또 외우다 보니 주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올케언니는 제 심성을 높여주러 온 것이었고 제가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케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는 나를 성취시켜 주러 온 것이고, 내 심성을 높여주러 온 것이며, 내 집착을 파내도록 도와주러 온 것이다. 나는 ○○에게 감사하며 미워하지 않는다. 그 미움, 원망, 보복심, 남을 깔보는 마음은 모두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들을 원치 않으며 소멸시킬 것이다. 나는 ‘진선인(眞·善·忍)’에 동화해 선자가 될지언정 악자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 말하며 제 주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이 정사 대전이 끝났고 저는 해탈해 나왔습니다.



▲ 멕시코 파룬궁수련자들은 정부 기관인 우아만틀라시 종합가정 발전국이 주최한 ‘다알리아 퍼레이드’에 참가해 “멕시코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수천 가족이 열정적으로 관람했다. 1370 AM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는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그들의 수련은 주로 ‘진선인’이라는 핵심 가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대한 퍼레이드 행사에 와서 여러분과 이러한 메시지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76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583만 7456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